정책동향

중소기업 장기 외화 Primary CBO 발행

중소기업청은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초기 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5년~10년) 저리의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3.5억불 규모의 외화 Primary CBO 발행에 합의하고, 중기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유채), 한누리투자증권(대표 안길룡)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채권발행 계약을 체결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신용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금년 들어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815억원 규모의 P-CLO(대출자산 담보부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 금번에는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111개 우량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화 Primary CBO'를 발행하여 장기 외화자금을 지원하게 됐다.

기술사 합동사무소 개설 허용

개인사무소 개설만 허용됐던 기술사들이 합동사무소를 차릴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기술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술사들이 합동사무소를 차릴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3인 이상의 기술 인력을 확보한 경우 합동사무소 개설이 가능해졌다.

시행규칙 개정령은 특히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기술사들의 책임감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술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사들의 활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기술사회가 산하 기술사에 대한 소정의 경력 및 실적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한국기술사회는 과기부의 위임을 받아 합동사무소 개설 신청 접수 업무도 수행한다.

기술동향

기술표준원, GMO 환경방출 감시지침 마련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환경방출 감시지침을 마련했다. 기술표준원은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보편화 되고 있는 GMO가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국가적인 GMO의 환경방출 감시지침을 마련하여 연내에 7건의 한국산업규격(KS)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KS규격은 GMO의 생산이나 수출입 시 GMO가 방출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으로, 유전자변형식물과 미생물의 방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료채취방법, GMO 확인방법 및 감시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 등 선진 각국은 GMO의 잠재적인 위해 가능성 때문에 1998년부터 국가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GMO의 환경방출을 감시하는 지침을 국가규격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관련 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50만톤 가량의 GMO가 수입되고 있으며, 앞으로 의약·화학·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GMO를 이용한 바이오 제품의 개발·생산이 활발해질 전망이어서 이에 관한 지침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벤처기업 중심, 특허 우선심사 신청 급증세

최근 들어 최단 기간 내 특허권을 획득,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심사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광림)에 따르면 1997, 1998년 각각 95, 99건에 불과했던 우선심사 신청건 수가 1999년 305건으로 폭증한 데 이어 2000년과 지난해 각각 787건과 1천26건 등으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증가세는 계속돼 지난 8월 말까지 748건의 특허가 우선 심사를 신청, 연말까지 1천1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올해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 가운데는 벤처기업이 출원했거나 출원인이 직접 사업화하려는 기술인 경우가 584건으로 78.1%를 차지, 우선심사제도가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조기 기술경쟁력 확보 수단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선심사제도는 다른 특허출원보다 빨리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출원에 대해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 없이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면서 우선심사 신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동향

벤처확인제, '이노비즈 평가' 새대안 각광

정부가 올 들어 잇따른 벤처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벤처확인요건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 감소, 세제혜택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평가해 자금지원 및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이노비즈사업'이 상대적으로 창업 초기 기업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한달동안 접수한 2002년 하반기 이노비즈기업 신청접수에는 창업한 지 얼마 안된 740여개의 벤처가 몰렸다.

이노비즈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매년 중기청이 정한 기간에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 중기청과 주요 평가기관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1차로 샘플링한 뒤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벤처기업의 기술가치를 평가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과 각종 사후 지원서비스를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산된 코리아바이오파크 美현지 조성계획

'코리아바이오파크' 사업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동안 미국 현지 부지 물색 등에 나서면서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바이오업계는 이 사업이 예산문제로 물거품이 되자 "우려했던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들은 그동안 미뤄온 미국 진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벤처협회는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소규모 거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샌디에이고에 버금가는 바이오집적지를 중심으로 센터 설립 방안을 타진중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미주리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 미국 주정부의 각종 세제혜택과 R&D 네트워크를 비교 분석해 왔다.

최근 미국립보건원(NIH) 근처에 위치한 버지니아주와 거점 설립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버니지아주는 실리콘밸리에 이어 동부를 대표하는 실리콘도미니언이란 별칭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이다.

해외뉴스

[미국] 인터넷거래 세금 매길듯

인터넷에서 상품판매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미국 주 및 지방정부들이 과세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와 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한 미국내 30개 주정부들은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상품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다.

이들 주 및 지방 정부의 인터넷 과세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미국내 다수의 주에서는 인터넷 판매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 과세를 내년 11월까지 연기키로 한 미의회의 지난해 결정은 물론, 연방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 위기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보기술 분야를 비롯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팔레스타인 사태가 이스라엘의 첨단산업 부문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IT경기 악화로 그렇지 않아도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해외투자자들이 불안한 내정으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를 더욱 줄이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첨단기술 기업들은 올 한해 12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이스라엘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최고에 달했던 2000년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제가 안좋은데다 지난 몇년간 이스라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과열된 것도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일부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2년 내에 투자가 고갈되고 대다수의 신생기업과 벤처펀드들이 퇴출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IT강국'을 향해 박차

중국은 한 해 미국에 조금 못 미치는 46만5000명의 과학·공학도가 배출되고 있다. 베이징 게놈연구소는 쌀의 유전자 지도를 이미 해석해 냈다. 7개 반도체 공장은 2004년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

장쩌민 국가주석도 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 정치보고에서 "이제부터 IT산업으로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겠다"며 'IT입국론'까지 천명하고 나섰다. 중국은 20세기 말 경제성장이 석유화학 철강 등 중공업과 노동 집약산업의 덕택이었다면 2020년까지 생산력을 또 다시 4배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은 IT부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